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12곳 선정·발표

새만금초·백운중·다문화학생 진로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모델 개발
 용산초·옥봉초·부안동초·고창초·장수초·나이스플러스 활용 방안
 익산맑은샘유치원·당북초·교육과정적 통합 특수일반교사 협력 방안
 전주고·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생진로성장지원 중심 교육과정 운영
 봉서초·부안초·초등 학교급 전환 시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12곳을 선정·발표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구학교 공모에 연구주제에 따라 최대 12: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4년 만에 재개돼 관심이 뜨거웠다.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개발=새만금초, 백운중(지정 기간 2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운영을 위한 나이스플러스 활용 방안=용산초, 옥봉초, 부안동초, 고창초, 장수초(지정 기간 1년)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특수일반교사 협력 방안=익산맑은샘유치원, 당북초(지정 기간 2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

생진로성장지원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운영 혁신방안=전주고(지정 기간 2년) △초등학교 학교급 전환 시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봉서초, 부안초(지정 기간 2년) 등 12개교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수업 요소'를 연구학교 지정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학교 운영의 중심을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뒀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공동연구·공동실천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업 개선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구주제가 담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질 높은 학

습 경험을 제공해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연구학교 운영과정에서 개발된 각종 창의·융합형 수업 자료들은 전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현장에 공유될 예정이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정은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학교 지정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절차와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2024학년도부터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주제들까지 더해져 연구학교가 더욱 확대될 예정으로, 연구학교가 전북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8일 전주 왕의지실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과 사립학교 학교장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립학교와 차별 없이 지원토록 노력”

서거석 교육감, 사립학교 학교장들과 간담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전주 왕의지실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립중학교와 사립 특수학교 교장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정책, 학교 통·폐합, 학교 시설 등의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학교장들은 학교운동부 전국 단위 모집은 가능한지, 농촌 지역 통학버스 지원 방안과 공동방학 확대 방안은 있는지, 교무실무사 인사이동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첨단 △균형 잡힌 인권 △협력 신장 △민중 등의 전북교육 키워드를 제시하며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

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일방계 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와 차례로 학교장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등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차별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데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LINC3.0 사업단 산학협력정보담당관 협업 워크숍

전주기전대학 LINC3.0 사업단은 28일 본교에서 협력기관구축형 LINC3.0 사업단장 및 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LINC3.0 산학협력정보담당관 공유협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 김원 협의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협력기관구축형 LINC3.0 11개 대학의 산학협력 우수성과 발표와 산학협력정보담당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의 산학협력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LINC3.0 사업 가치 창출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의 역할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방안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재학생 진로·취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네트워크 기반을 다졌다. 조덕현 단장은 "대학 간 지속적인 교류와 성과공유로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의 화합교사로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 모집

전북대, 일반 563 · 영어촌 7 · 기회균형 선발 4명
특성화고졸 재직자 1 · 학사편입 76명 등 총 651명
내년 1월 3~6일 원서접수, 내년 2월 9일 합격자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을 통해 총 651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편입 563명, 영어촌학생 7명, 기회균형 선발 4명, 특성화고졸재직자 1명, 학사편입 76명, 군위탁전형 등이 다. 원서는 내년 1월 3~6일 우웨이 어플라이 홈페이지(<https://www.uwvapply.com>)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답·면접·실기고사는 내년 1월 31일 실시하고, 합격자는 2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사업 '큰 호응'

'우리 도서관이 달라졌어요'

전주 포함 7개 교육지원청에 사서직 공무원 배치
 사서교사 없는 도서관 대상 장서 관리 등 지원
 올해, 사서직 공무원 미배치 7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도서관 권역별로 나눠 독서프로그램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학교도서관 업무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전주를 비롯한 7개 교육지원청(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에 사서직 공무원을 배치해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연수, 장서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서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7개 교육지원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소속 학교도서관을 권역별(동·서부)로 나눠 장서 관리(장서점검, 자료폐기 및 재배열)와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동부권



에서는 △무주 괴곡초 △진안 부귀초, 진안공고, 진안중, 한국한방고, 마령중 △임실 대리초, 신평초 △장수 법암초, 변암중, 백화여고 등 11개 학교도서관에서 업무 지원을 했다. 또 서부권에서는 △부안 백산초, 부안남초 △고창 동호초, 상하초, 성내초, 심원초, 해리중, 선동초, 흥덕중, 대산초 △순창 북흥중, 구림중, 순창고 등 13개 학교를 방문해 학교도서관 운영 시스템 컨설팅과 효율적인 장서관

리를 위한 점검 및 폐기, 학생들의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19~28일까지 학교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도서정리용품 꾸러미를 구입해 전달하는 등 참여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에도 민전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지원은 학교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학교도서관 업무지원 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7명 전원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업무지원 사업이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도서관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한 교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업무가 나질 않았는데 사서선생님의 도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큰 짐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장서 관리를 통해 변화된 학교도서관을 지켜본 A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의 중요성과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과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이 연속성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사서직 배치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장서 관리를 통해 변화된 학교도서관을 지켜본 B학교장은 "이전까지 사서직이 배치되지 않은 교육지원청에 사서직이 배치돼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과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 우수 사례 공유 세미나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우수 사례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23일 3일간 제주관광대학교 대문스퀘어에서 열린 세미나는 3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대학은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관심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산학협력 혁신을 위한 대학 간 노하우 공유·협업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대학 상호 간에 사업성과 공유 및 컨설팅 지원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비전대학교 이근상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갖고 있는 특성화 분야를 결합한 현장 수요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취업 준비 재학생 환경보전 의식 함양

호원대, 현직자와 함께하는 지역 Green 진로교육 · 탐방 성료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취업준비를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현직자와 함께하는 지역 Green 진로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학 호텔외식조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소방안전학과와 지역사회기업인 (주)대우식품 등 3개 기업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처음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지역사회기업 방문을 통해 현직자와 함께 현업의 실무를 이해하고, 진로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임 지도교수 및 현직자와 동행하며 현업의 실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피드백을 통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영 센터장(사회복지학과 교수)



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호원대가 지역사회 및 지역 기업들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재학생들에게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고취하고,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탐색(1학년), 진로설계(2학년), 진로역량개발(3학년), 진로실현활동(4학년) 등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올 하반기 3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

교육과정 등 5개 평가영역 인증 기준 충족...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인증 자격 유지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022년 하반기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는 절차로,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평가영역과 30개 평가준거로 구성 대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석대는 5개 평가영역 인증기준을 충족했으며, 30개 평가준거도 모두 충족(ALL PASS)을 획득해 2027

년 12월까지 5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남천현 총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교육여건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